



검찰연합일보 모바일 보기



고위공직자범죄신고
02-6320-0200



검찰
PROSECUTION SERVICE

이재명 습격 피의자 추정 인물, 봉하마을서도 포착

지난 1일 평산마을 가까운 울산역도 방문...지난달에도 부산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건 전날인 1일이 대표가 방문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도 포착됐다.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있는 봉하마을 현장 영상을 보면 용의자인 김모(67) 씨와 매우 유사한 인물이 찍혀 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끝낸 무렵에 찍힌 영상 속에서 김씨 모습이 나온다.

취재진과 유튜브버들이 민주당 인사들을 촬영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뒤편에 김씨 추정 인물이 서 있다.

김씨는 부산에서 범행할 때도 취재진 뒤에서 기다렸다가 이를 비집고 들어가 공격했다.

김씨 추정 인물은 부산 습격 날과 마찬가지로 남색 재킷에 안경을 쓰고 있다.

다만 '내가 이재명'이라고 쓰인 파란색 종이 왕관은 봉하마을에서는 착용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는 '총선승리'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있었고, 등에 가방을 메고 있는



왼쪽은 사건 전날 봉하마을 모습, 오른쪽은 2일 범행 이후 유치장에 입감되는 모습

모습도 보인다.

김씨 추정 인물은 민주당 인사들이 인터뷰하는 뒤편에 있는 바위 등에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현장에서 이를 촬영했던 유튜브 등도 김씨 추정 인물을 습격범인 김씨와 동일한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부산으로 왔다가 당일 울산역을 다녀오기도 했다. 울산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과 승용차로 20~25분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2일 오전 습격당하지 않았다면 평산마을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김씨가 이 대표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 후보지 등을 사전에 답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포착된 바 있다.

/ 송진영 기자

‘흥기 난동범’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미약 상태 추정”

검찰,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까지 검색했다”...감정 결과 반박

지난해 8월 경기 분당에서 발생한 ‘흥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그러나 “(최원종이)범행 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감정 결과를 반박하며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



최원종 검찰 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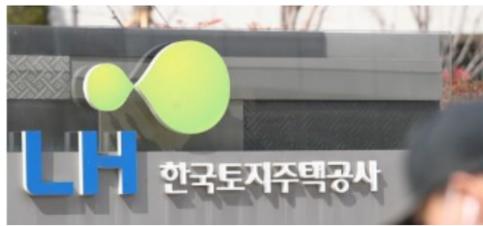
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원종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5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심리상태를 분석한 결과, 최원종은 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봤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받은 뒤 범행 직전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홀로 살며 망상증세를 보이던 최원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점, 장기간 수행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3명이 법정에서 나와 증언하기도 했다.

/ 최승현 기자

LH, 공공주택 건설현장 PF 위기 대응 강화...“태영은 집중관리”



이번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LH의 주택과 단지 등 9곳의 건설 현장에서 4천10가구를 건설 중이다.

LH가 진행 중인 주택·단지 건설현장은 총 336곳, 7만9천751가구로 전체에서 태영건설이 차지하는 물량은 5% 수준이다.

LH는 이와 함께 노임 및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업체 공사비 지급 지연, 하도급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별 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품질관리처 주관으로 본사와 지역분부가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상시 보고체계를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해 건설사 및 협력사를 부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조성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시장 불안 확산으로 공공주택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현장 유동성 위기 징후 파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4일 밝혔다.

LH는 특히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 관리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김주애, 현재로선 유력한 北후계자...변수 많아 주시”

‘후계자 유력’ 판단은 처음...조태용 “김정은, 성별미상 자녀 더 있어”

국가정보원은 현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후계자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4일 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김주애 등장 이후 공개 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판단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조 후보자는 “그러나 김정은이 아직 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데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김정은 자녀와 관련해 국정원은 2013년 생 김주애 외에도 성별 미상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자녀 등 변수가 있기에 김주애가



김정은, 딸 김주애와 '건군절' 기념연회 참석

후계자로 확정될지는 더 주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정원도 이날 오전 언론에 전달한 자료에서 조 후보자의 서면 답변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상황이고 남측 우주 사회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2023년 3월 북한이 신형 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한 만큼 성능 검증과 위력 과시를 위한 핵심일 수 있는 이 전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임성윤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2024 갑진년, 하나뿐인 내 편 하나금융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2024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엔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검찰 '돈봉투' 송영길 구속기소... "조직적 금권선거 최종 책임자"

당내 6천650만원 살포·불법 정치자금 7억6천만원 수수·4천만원 뇌물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영상심사 마친 송영길 전 대표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천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이 김모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의 선거자금 5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강조했다.

그가 당 대표 당선을 목표로 금품을 살포하기로 하고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에게 경선캠프의 부의 선거자금을 총괄하게 하면서 자금 관리·집행의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부의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0.59%의 근소한 차이로 앞질러 당선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



미국 LA서 재외선거 투표

"22대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서둘러주세요"...2월 10일 마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재외국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재외선거인 등록과 변경 및 국외부재자 신고가 대상이다.

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국민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인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직전 대선 또는 총선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

지 않거나 국적 상실·이탈이나 수행 사실 등으로 선거권이 없는 경우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

대상자들은 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여부 또는 영구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22대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 기간은 오는 3월 27일~4월 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재외공관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 장석준 기자

유형업소 실장 협박한 해킹범, 이선균 협박범과 동일인물

유형업소 실장도 공갈 혐의로 추가 입건...내일 검찰 송치



이선균 협박한 20대 여성 구속심사 출석

배우 이선균(48·남)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었다가 최근 구속된 20대 여성이 유형업소 실장을 협박한 해킹범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

약범죄수사대는 이씨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유형업소 실장 A(29·여)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된 B(28·여)씨인 것으로 사실상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모르는 해킹범

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

한달가량 뒤 B씨도 이씨에게 직접 연락해 2억원을 요구하며 유사한 협박을 했고 결국 5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A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A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했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한 해킹범의 존재를 수사했으나 제3의 인물이 드러나지 않았고, B씨가 평소 친하게 지낸 A씨를 협박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A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다. 이후 그의

아파트 뒷집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냈다. B씨는 지난해 10월 핵심 증거물인 A씨의 머리카락을 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직접 찾아가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기도 하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협박해 이씨로부터 뜯은 3억원을 자신이 받아 챙기려다가 실패하자 그를 구속시키려고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의심했다.

A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3억원 가운데 일부를 그의 가족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5일 B씨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추가 입건한 A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 배영성 기자

시민단체 "쌍특검법 거부는 '법 앞의 평등' 무시...수용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 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전국민중행동과 4개 진보정당 등 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의혹이 차고 넘쳐남에도 대통령과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

될 수 없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용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거부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 공공복리를 지키기 위한 합헌적 목적으로만 쓰여야 한다"며 "우리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행정 독재로 파괴하는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 박소희 기자

SAMSUNG

함께라서
용기나는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래를 향해 새롭게 꿈꾸고
힘차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의 2024년을
삼성이 응원합니다

“말수도 적었는데...놀랐다” 주변에서 전하는 이재명 습격 피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부동산중개업자 김모(67)씨가 지난해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정황이 포착됐다.

3일 오전 김씨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실은 문이 닫혀있었지만,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책상 위에는 각종 문서와 필기류, 신문 등이 놓여 있어 최근까지 영업했던 흔적이 역력했다.

은행으로부터 내용증명 등기우편이 전날부터 배달됐지만, 수취인 부재로 등기나 송달은 이뤄지지 못해 우편물 도착 안내문만 붙어 있었다.

그는 월세 5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는데 지난 7개월간 월세를 밀려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주 A씨는 “김씨가 전 건물주에게 전 빚도 160만원 있고 밀린 월세가



부산경찰청이 3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씨의 직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김씨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김씨는 조용하고

서는 김씨의 이번 범행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평소 김씨와 왕래했다는 한 주민은 “보수 성향의 신문을 자주 봤지만, 특

고 많이 놀랐다”고 밝혔다.

김씨의 외조카 B(57)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외삼촌이 보수 성향인지 진보 성향인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과거 태극기 집회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촛불집회에 나간 적이 있지만 정치색과는 무관하다. 극우-극좌라는 이분법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 등을 통해 이번 범행을 계획범죄로 보고 이날 오후 1시 30분

충남 아산 부동산중개 사무실에 생활고 흔적 “7개월간 월세 밀려”

주민 “정치색 잘 안 드러내”...정치 관련 유튜브 시청 등 전언도

지 합하면 빚이 500만~600만원가량 됐다”며 “작년 연말에 연락이 와 사무실을 처분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월세 임차나 매매, 상가주택 건물 등을 취급했는데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서 거래가 성사된 것은 많이 없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소심한 성격에 평상시 간단한 인사 외에는 말수도 적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

다만 평소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정부, 정당 관련 비판도 하고, 신문을 구독해서 읽거나 정치 관련 방송이나 유튜브 등을 보는 등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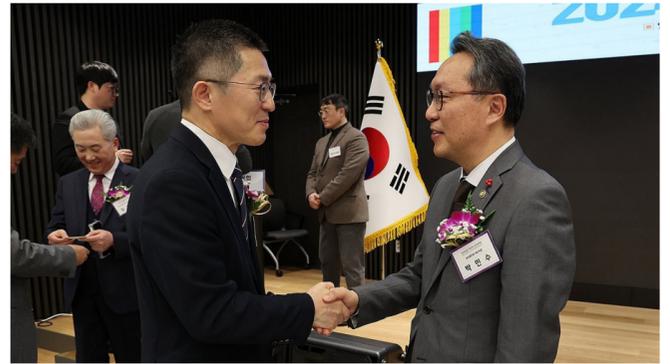
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색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며 “그냥 살기 버거우니까 정치인에 원한도 생기고 화집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근 상인 역시 “예전에는 부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같이 일했는데 요즘엔 계속 혼자 나와 담배를 자주 피웠다”며 “조용히 일만 하는 사람이어서 소시

게부터 1시간 30여분가량 김씨의 사무소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산경찰청 소속 수사관 25명은 김씨가 평소 사용한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김찬우 기자



의협 회장 “보여주기식 의대 증원 안돼 불합리한 정책 알릴 것”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4일 “의대 정원 증원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하례회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여야 의원,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최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중차대한 이슈를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다”며 “2024년 연초는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어느 때보다 널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설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 모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며 “의협은 유연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낸 신년사에서 “무분별한 증원을 막으려

면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을 포함한 필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 중이다.

이날 하례회에 함께 참석한 윤동섭 대한병원협회(병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지역 및 필수·응급의료 체계가 위기에 놓였고,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윤 회장은 “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酬價)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의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민석호 기자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정원을 증원해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일 정기인사에서 자본시장 특사경 정원을 26명에서 46명으로 20명 증원하고 금융위원회·검찰과 특사경 지명을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경 인원 증원은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근절·투자자 피해 방지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검찰의



축사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특사경 인력 3명을 파견한 바 있다. 오는 9일에는 불공정거래 현안 수사 지원을 위

해 검찰과 금융위에 특사경 인력 11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발생 시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현안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톡·핀플루언서 등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지호 기자

정부 “격 안맞게 국가원수 폄훼, 책임전가 잔폐”...김여정 비판

‘과장급’ 부대변인 명의로 반박...군 “범죄자가 경찰 탓에 범행했다는 궤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정부는 3일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 증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는 잔폐”라고 일축했다.

김인에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서 “(김여정 담화는) 격에도 맞지 않는 북한 당국자가 우리 국가원수와 정부에 대해 현 상황을 왜곡하고 폄훼함으로써 무력 적화통일 의지를 은폐하고 남북관계 긴장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려는 잔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러 “정부의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및 안보 강화에 대해 북한이 당황한 상태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과장급인 부대변인을 내세워 차관급인 김여정의 담화를 반박한 것은 김여정이 격에 맞지 않게 우리 대통령을 비판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변인은 또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군사력 강화를 위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김여정의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결코 멈춘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로 그간 군사 활동이 제한됐다’는 취지의 김여정 주장에 대해서도 “(9·19군사합의는) 재래식 및 정찰 부문에 열세인 북한측의 희망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들(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술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기만적 술책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적반장정식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조치에 책임 전가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저급하고 비열한 잔폐에 불과하다”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무례한 언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김여정 담화에 대해 “범죄자가 오히려 선량한 시민이나 경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며 궤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성진 기자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innovation



작품명 Green Innovation

모두가 꿈꾸는 넷제로 세상, SK이노베이션이 만들어 갑니다

SK이노베이션의 그린픽처

SK innovation SK energy SK geo centric SK on SK enmove SK incheon petrochem SK trading international SK ie technology SK earthon

한동훈 “다 제 책임”...노인회 찾아 민경우 ‘노인 비하’ 사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한노인회 방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대한노인회를 방문, 김호일 노인회장에게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장동혁 사무총

장, 김형동 대표 비서실장 등과 함께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당으로, 그레아만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다 제 책임이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작년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가장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거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라고 말한 내용이 알려져 논란을 낳았고,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한 위원장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드린다. 앞으로 저희 구성원 모두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언행을 신중히 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도록 제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지시했다”며 “어르신들께 정말 더 잘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직자들에게도 이러한 주문을 했다고 한다.

김 회장은 민 전 위원에 대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경제 10대 강국을 만든 노인한테 공을 치하하고 상을 줘야 할 텐데

그 노인을 빨리 죽으라 하면 벼락 맞아 죽을 사람 아닌가. 어찌 그런 사람을 뽑았나”라며 “인사 검증이 참 어려운데 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작년 8월 당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 논란으로 노인회를 찾아와 사과했을 때를 언급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그전에 여기 앉아서 나한테 호되게 혼이 났다. (김 위원장은) 3~4일 만에 왔었고, 이제 명 씨는 사과하러 온다고 하더니 결국 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내가 (비판) 성명을 내니까 신속하게 하루 만에 그 사람을 해촉하고 민중에게 하니까 대응하는 게 확실하 다르구나. 젊은 분이 다르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희망이 좀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 신원철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신원식, 의원 시절 육성으로도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 있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시절 소셜미디어 게시글뿐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육성으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회의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종섭 당시 장관은 “(1945년과 지금의 일본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은 신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제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날이었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간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신 장관은 지난해 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며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 이형민 기자

홍익표 “尹, 친일·매국논쟁 빠지지 않으려면 신원식 파면하라”

금투세 폐지에 “세수 확충해야 하는데 또 감세...잘못된 판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친일·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과감하게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첫 번째 행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시절 페이스북 게시글뿐만 아니라 국회 국

방위원회 회의에서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발간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돼 파문이 인 것과 맞물려 야당은 신 장관의 파면을 지속해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이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신 장관의 생각에)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신 장관은 이완용을 두둔하고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도하는 등 기본이 안 돼 있다”며 “이런 함량 미달 인사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매기는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충분히 세수를 확충해야 하는데 또 감세를 한다”며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쌍특검 법안이 이르면 이날 정부에 이송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과 연관 지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 최규선 기자

與 허은아, ‘이준석 신당’으로...“양자택일 협박 끝낼 것”

비례의원직 상실...‘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승계 1순위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및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준석 전 대표와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3일 탈당해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에 합류한다고 선언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민의힘을 떠났다”며 “꽃길이어서가 아니라 가야 할 길

정의 가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의 국정운영 기조와 불통이 문제이고, 느닷없는 이념 집착이 문제이고, 검사 일색의 인사가 문제이고, 거기에 더해 대통령 가족의 처신이 문제라는 점

는 뒷전인 정치, 누군가는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나와 신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협박 정치를 끝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당이 혼신을 다해 지켜야 할 두 글자가 있다면 바로 ‘자유’라며 “표현의 자유가, 문화가 곧 민생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일상을 관통하는 진짜 민생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합류하면서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당 잔류 의사를 밝힌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신당에 함께 하게 됐다.

이날 회견에는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인 이 전 대표도 함께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당의 온라인 당원 가입이 오늘부터 시작했다. 방금 확인해보니 5천400명 정도 당원 가입을 했다”며 “지금 속도대로라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중앙

이준석 “첫날 5천400명 당원 가입해 금명 설립 가능”

“당 안 가리고 현역의 원 소통중”

이고 비검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길에 가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비례대표로 탈당계가 처리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의원직은 비례대표 후보 다음 순번인 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은희 코치가 승계받게 된다.

허 의원은 이번 주 탈당계를 내고 개혁신당에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는다.

허 의원은 “이대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암습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제약되고 공

을 지적하지 못한다”며 “이제 인정해야 한다. 아닌 건 아닌 것”이라며 당정 관계를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이 와서 윤석열이라고, 급하게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들이 비겁한 자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기회를 결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개혁신당에 대해 “양당의 진흙탕 정치, 강성 지지층 분조만 부추기는 정치, 그러는 사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당 설립 요건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당 합류와 관련해 접촉하고 있는 현역 의원에 대한 질문에 “현역 의원 중에서도 활발히 소통하고 계신 분이 당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보수 정당에서 오래 활동해 오신 분들일수록 최근의 현상에 대해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경향성은 확실히 느낀다”고 답했다.

/ 송유영 기자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건강한 정치문화화를 이룹니다.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강한 정치후원금이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동계청소년올림픽 안전 책임진다”...경찰, 철통경비태세 돌입



윤희근 경찰청장이 3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게 될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방문, 직원들과 완벽한 대회 운영을 다짐하고 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연일 올림픽 시설 현장 점검과 모의훈련, 대책 회의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일 개최식장인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찾아 조직위원장과 사무총장 등을 만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지원대책 간담회를 했다.

이어 김준영 강원경찰청장과 대회가 열리는 4개 시군 경찰서장 등과 함께 경비·안전 종합지원대책을 논의한 뒤 대회 시설을 점검하고 경찰특공대원 등을 격려했다.

윤희근 청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한 저력을 바탕으로 경찰역량을 집중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선수들이 선수촌에 입촌하는 오는 13일부터 강릉 종합운동장에 경찰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대회 기간에 선수촌과 경기장에 경찰특공대 등 연인원 2만1천여명을 전진 배치해 순찰 활동을 펼친다. 또 모든 대회시설을 테러 취약 시설로 지정·관리하는 한편 범죄예방 강화구역 설정하고, 인파 관리 등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교통관리를 강화한다.

/ 송원기 기자



2024년 1월 3일(수) 11시 00분 장소: 청주시청 임시청사 브리핑룸 주최: 청주시 눈썰매장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 충북시민사회단체

청주시 눈썰매장 붕괴 사고 피해자 기자회견

청주 눈썰매장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 “진상규명·대책마련 촉구”

청주 눈썰매장 붕괴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들이 엄정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 피해자 가족과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눈썰매장 개장 전 실시한 몇 차례의 현장점검에서 보행통로 구조물 위에 눈과 얼음이 쌓여 있던 것을 인지했으나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다”며 “눈썰매장 홍보에만 열을 올렸을 뿐 안전관리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붕괴 사고와 관련한 안전 점검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또 시는 피해자 회복 지원,

시설 안전 점검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 보합 안내 등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시민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청주 눈썰매장에서 비닐하우스 형태의 이동통로 30m 가운데 하부 7m가량이 붕괴해 10여명이 잔해물에 깔렸고, 3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시 당국은 개장 전 5일간 눈썰매장에 뿌린 인공 눈이 이동통로 지붕 위에 쌓였고, 철재 및 비닐 구조물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정민 기자

평창 폭발때 잔량가스만 최소 33t ‘아찔’...신속대처로 참사 막아 LP가스 누출 신고 직후 주민 대피·도로 통제...폭발 후 차단진화

평창 장평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 사고 당시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신속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3일 평창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3분께 발생한 폭발 사고로 2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3명이 다치는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사고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신속한 대피와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창군은 분석했다.

우선 사고 발생 10분 전 가스 누출을 감지한 주민 김택철씨가 신고 후 인근 주택 10여명의 대피를 돕는 등 시민정신을 발휘했다.

신고받은 평창군은 즉시 ‘충전소 근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차량은 우회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또 사고 발생 12분 뒤 평창군수가 현장에 도착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전 직원 비상 대기,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대피 지시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

소방과 경찰의 대처도 빨랐다.



지난 1일 오후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반경 300m 구간의 마을이 초토화된 가운데 2일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가스 누출 신고를 받은 지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안전 조치에 이어 사고 후에는 곧바로 진화작업으로 전환했다. 경찰도 신속한 도로 통제에 일조했다.

특히 충전소에는 50t과 30t 용량의 가스 저장 시설에 각 13t과 20t의 프로판 가스가 남아 있었고, 가정용 LP 용기는 20kg짜리 489개, 50kg짜리 284개 등이 있었다.

자칫 불길이 가스 저장 시설과 용기가

지 변했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소방의 집중 진화로 이를 차단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인명피해가 난 예까지 않은 사고였지만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이재민의 구호금·생계비·주거비 등 생활 안정 지원과 신속한 사고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비비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황유정 기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벌금형에 상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그 전날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위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 오석준 기자

‘오리온 카스타드’서 식중독균 검출...판매 중지·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과자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지·회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이 제

조·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충북 청주시가 이같이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이 제품의 제조 일자자는 2023년 12월 22일,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며, 23g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g짜리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산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 강희주 기자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LIVE

수출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외 수입자 신용조사부터 수출 관련 자금조달, 수출보험 가입, 수출대금 회수까지 K-SURE가 수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트럼프, 재판 지연 전략에 “외국발 비밀공작 피해자” 주장도

법원에 기밀정보 공개 요구...특검팀 정치적 편향성도 주장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 재판과 관련해 지연 전략 외에도 허위정보 피해와 수사팀의 편향성을 주장하는 전략을 들고나왔다고 CNN 방송이 2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비공개로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2020년 대선과 관련한 외국발 비밀 허위정보 공작의 증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의에서 행동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020년 네트워크 솔루션업체 솔라윈즈가 러시아 해커에 뚫려 미국 연방기관과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을 이 같은 허위정보 공작으로 지목했다. 해당 사건이 대선과 관련이 있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변호인단은 당시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부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란과 중국의 미국 정치 개입 시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도 필요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 출석한 트럼프

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의 정치적 의도를 부각하기 위해 특검 임명 전까지 다른 연방기관에서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특검 임명 시기인 2022년 11월 이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기관들의 조사 상황을 밝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검 합류 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벌였던 법무부 검

사들과, 최근 이번 사건 수사를 지연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워싱턴DC 연방 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소속된 기관의 자료 공개를 법원에 요구했다.

변호인단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하는 것은 배심원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정보 및 법집행기관 소

속 인사들이 정치적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알고서도 폭력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자신이 당선됐을 것이라고 믿었는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러한 요구와 관련, 이번 사건 담당 타냐 처트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을 앞두고 잭 스미스 특검팀은 재판 지연을 막고자 적극 방어에 나섰다.

특검은 “법원은 재판 절차에 정지를 개입하려는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도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자료가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위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첫 재판은 3월 4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혐의에 대한 형사상 면책특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달라는 특검 요청이 연방 대법원에서 거부됨에 따라 실제 일정이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최준용 기자



강진에 무너진 가옥 살피는 일본 소방관들

中 “日 강진 구조에 도움 제공 의향 항공기 충돌 사망자 애도”

“충돌 여객기 탑승 홍콩 여행객 14명 모두 연락 닿아”

중국이 일본에서 새해 첫날 강진으로 최소 6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우리는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에 대해 일본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며 “일본의 지진 대응·재난 구조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부상자에 위로를 전했다.

그는 와지마시 등 피해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등 날씨도 좋지 않고 계속해 활발한 지진활동도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 노건우 기자

들 사고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했다.

왕 대변인은 “(항공기 충돌로) 다친 중국 공민(국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고 여객기에는 홍콩 여행객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일본 주재 대사관이 이들과 연락을 취했다”고 했다.

일본 혼슈 중부의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는 1일 오후 4시 10분께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고, 여진도 이어졌다. 이번 지진으로 이날 오전 11시 기준 사망자 64명이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370명으로 파악됐다.

이튿날인 2일에는 하네다공항에서 JAL 여객기가 착륙 직후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로 인해 두 항공기에는 불이 났고, JAL 여객기 탑승자 379명은 모두 탈출했으나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탔던 6명 중 5명이 숨졌다.

/ 백도영 기자

기시다 “붕괴 건물 등에서 구조 대기 130건...시간과의 싸움”

사망자 62명·중상자 26명...일부 해상 수송 개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자 구조 작업과 관련해 “지진 발생 후 40시간 이상 경과한 상황”이라며 “피해자 구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3일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건물 아래에서 기다리는 분이 아직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구조가 필요한 피해자 정보가 약 130건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지자체 등의 보고에 기반한 인적 피해 현황으로 사망

자는 62명에 달하고 중상자는 26명, 경상자는 1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 현장 지원 인력과 군과 경찰의 구조견을 2배로 늘리는 등 구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부 해상 경로를 통한 수송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로 곳곳이 파괴돼 진입이 어려웠던 와지마(輪島)시도 철야 작업을 통해 육상 진입로가 4t 트럭의 통행이 가능한

태국, 유흥업소 소비세·주류세 인하...“관광 활성화 목적”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연간 외국 관광객 3천400만명 목표



태국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흥업소 소비세와 주류세를 인하했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전날 이러한 방안을 승인했다고 차이 와차롱 정부 대변인이 밝혔다.

와인 주류세는 10%에서 5%로 인하되고, 10%였던 증류주 주류세는 면제된다.

유흥업소에 대한 소비세 역시 10%에서 5%로 내렸다. 이러한 세금 인하·면제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세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관광객이 늘어남으로써 손실이 상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은 관광산업이 직간접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관광 대국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앞서 방콕과 푸켓 등 주요 관광지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2시에서 오전 4시까지로 연장하는 등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태국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인도 관광객 등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허용했다.

중국과는 오늘 3월부터 양국 국민 간 상호 비자 면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 양승호 기자

‘틱톡 전면 퇴출’ 막은 美법원 결정에 몬태나주 항소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던 미국 몬태나주가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항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태나주 검찰총장 오스틴 크누센은 몬태나주가 틱톡 금지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주 연방법원의 작년 11월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몬태나주는 지난해 5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사용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법은 몬태나주에서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의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 달러(약 1천33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틱톡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몬태나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틱톡의 손을 들어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밝힌 금지명령의 효력 기한은 이달 16일까지다.

/ 진성훈 기자

DB손해보험

안전하기로, 건강하기로, 사랑하기로

약속된 플레이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면 약속된 행복이 찾아오니까

약속하길 잘했다!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뼉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정채봉
첫마음
중에서

2024년, 언제나 당신을 설레게 하는
새로운 내일을 기원합니다

‘알맹이’ 없는 태영건설 자구안...채권단 워크아웃 동의 ‘빨간불’

태영건설, 사재출연·SBS 언급 없어...산은 회장 “강력한 자구안 필요”



3일 오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시했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자구안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혀 워크아웃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제1차 채권단협의회가 예정된 이달 11일까지 더 적극적인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채권단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제대로 채무를 상환할 기회를 주면 임직원 모두 사력을 다해 태영을 살려내겠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읽었다.

그러나 윤 회장은 사재출연 규모나 SBS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채권단의 질의응답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떴다.

태영건설은 우선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천549억원(태영그룹 윤석민 회장 416억원+티와이홀딩스 1천133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고, 계열사인 에코비트의 매각을 추진해 매각자금에 태영건설에 지원하는 안을 발

표했다. 또 골프장 운영업체 블루윈의 지분 담보제공과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 제공을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채권단 관심 사항인 오너 일가의 사재출연 규모나 SBS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관계자는 SBS 매각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채권단 질문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재출연 규모나 추가 자구안을 묻는 말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런 대담에 설명회장 참석자들은 ‘저게 다냐’며 웅성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채권은행인 산은 측은 태영건설의 자구안 약속이 첫날부터 지켜지지 않았으며 자구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티와이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중 1천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산업은행과 약속했지만, 확보한 자금을 티와이홀딩스의 채무를 갚는 데 사

용했기 때문이다.

양재호 산은 기업구조조정1실장은 설명회에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천549억원을 태영건설로 넣어야 했지만, 티와이홀딩스 채무변제에 활용하고 400억원만 넣었다”며 “오늘(3일) 낮 12시까지 1천149억원을 넣고자 했지만 티와이홀딩스 채무 변제에 계속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가지 자구안이 첫날부터 지켜지지 않아 실망스럽고, 현재까지는 워크아웃을 진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이달 11일까지 태영그룹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구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역시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상식적으로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동의할 것이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며 “태영 측에 강력한 자구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종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채권단 관계자들은 사재출연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태영의 자구노력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며 “이대로라면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1차 협의회까지 태영건설의 자구책에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고 신중히 검토하고 워크아웃 개시 찬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SBS를 팔지 안 팔지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중요한 건 채권단에 성의를 보이는 것인데, 그게 너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설명회는 채권 금융기관 6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채권단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해 설명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송원기 기자



세븐일레븐 ‘프라이드 한 마리 9천원’

소비자단체 “bhc 치킨값 3천원 인상 유감 가맹점 이중부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지난달 말 85개 제품 가격을 최대 3천원 인상한 데 대해 3일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원가 부담 때문에 가격을 인상했다는 bhc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연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bhc의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30.1%로 다른 브랜드와 업종 대비 유난히 높다”며 “2018년 대비 2022년의 매출원가 상승률은 5.7%이지만, 순이익률은 31.8%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bhc는 소비자가격 인상이 ‘가맹점 수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으나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가격을 평균 8.8% 인상했다”며 “이는 가맹점에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매출 부담이라는 이중 부담을 주면서 본사 이익만 챙기려는 의심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bhc를 포함해 교촌치킨, BBQ 등 3대 치킨 프랜차이즈의 프라이드 치킨 가격이 2만원으로 동일하고, 대다수 메뉴 가격이 비슷하다며 ‘가격 경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bhc가 실제로 가맹점 수익을 위한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더 합리적 결정”이라며 bhc에 가격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bhc는 상생간담회에서 가격 인하를 주장한 가맹점주는 한 명도 없었고, 이번 가격 인상은 가맹점주들 요청을 반영한 결정이었다며 소비자단체협의회 성명을 반박했다.

bhc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주문중계 수수료, 배달 대행 수수료, 인건비, 전기·수도·가스비 등 부대비용이 올라 가맹점주가 요청해 이뤄진 면이 크다”며 “점주들은 가격을 인하여 박리다매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노현주 기자

금융정책 수장들 “부동산PF 우려 속...건전성 관리 중요”

이창용 한은 총재 “PF 질서 있는 정리 협조...인플레이션 싸움 잘 마무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금융 수장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금융·통화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장들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커진 것과 관련해 금융권에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 신년사에서 “최근 부동산 PF를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의 영업방식과 재무관리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고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 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총담금 확충과 올해부터 시행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등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은총재도 “건축 기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금융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일부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부동산 PF의 경우 질서 있는 정리과정에서 한국은행도 정부·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는 국가별로 (통화) 정

책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은행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정교한 정책조합을 통해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경제는 부동산 PF, 가계·기업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돼있는 상황”이라며 “장단기 이슈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 정상화·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 금융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구조·산업 변화 대비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언급했다.

한편, 이날 열린 범금융권 신년 인사회는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권별 협회가 해마다 주요 기관장 등을 초청해 여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금융 유관 기관 대표 등 500명이 참석했다. / 박준호 기자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국세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위메이드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천여만원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공시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9일, 자기자본 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

합병됐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채현욱 기자

건설이 만든 금융 www.cgbest.co.kr

대한민국 건설산업 더 높이, 더 멀리

건설을 든든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건설의 시작과 끝,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건설을 바꿉니다. 일상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내일을 보증합니다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버팀목

건설경제조합은 지난 59년간 국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로·철도·공항 등 공공시설부터 주택·공장·오피스빌딩 등 민간시설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삶의 터전이 적기에 안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건설보증과 공제(보험)사업을 통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상담 1588-1444

공제 가입문의 02-3449-8946 건설회원 상담문의 02-3449-8686
건설경영지원 043-850-4523 세종필드골프클럽 044-861-5678

건설경제조합
Construction Guarantee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새
해
아
침
에

쓰
는
편
지

새해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지만
그 순간, 자기 소원만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 많이 웃게 해주세요”
“우리 민서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금융그룹도
우리를 위해 새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사장님들이 더 자주 웃게 해주세요”

우리라는 두 글자를 맨 앞에 두고
우리 곁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편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동연 “총선전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무산, 정부 직무유기”

“총선용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오염됐으나 북부특별자치도 계속 추진할 것”

김동연 경기지사는 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총선 전 주민투표는 이제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목적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존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모, 올해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동 협약 운동’ 추진 등 향후 계획도 밝혔다.

그는 “북부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에 발맞추면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깨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북부대개발’ 비전 구체화, 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명칭

북부대개발 비전 구체화와 관련해 그는 “교통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교육·의료 등 삶의 질 향상, 생태관광 자원 개발로 경기북부 잠재력을 깨우는 북부대개발 비전을 지난해 발표했다”며 “그 성과가 지역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되도록 키우고 지역 상황에 맞게 다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TF’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명칭 공모와 관련해서는 “새로 탄생할 특별자치도는 역사성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명칭이 필요하다”며 “북부와 남부, 단순한 지리적 프레임 넘어 경기북부의 새로운 이름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북부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동 공약으로 내걸고 민의를 확인받도록 하겠다”며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로부터 지지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흔들림 없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기초의회, 도의회, 국회의원, 기초단체장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10개 시군 지역 주민들과도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를 고수할 것인지 총선 뒤 지방의회 의견 수렴으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시·군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하

는 방법이 있으나 주민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고 또 추진에 동력을 받기 위해 정당 당당하게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의미”라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21대 국회에서의 주민투표는 무산됐다”며 “22대 국회에 진출하는 의원들의 동의와 합의를 미리부터 얻어 주민투표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30년 가까이 빌공자(字) 공약으로 정치인들의 정치적 구호에 그쳐왔던 일을 8부 능선까지 오게 한 것에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지금까지 했던 일과 그 성과는 불가역적으로 반드시 이룰 것이라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선거용 핏수가 일으킨 흉물들은 선거가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라며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해 35년 동안 정치적 손익에 따라 호출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최현성 기자



소상공인·전통시장 관계자 만난 오영주 중기장관

중기장관, 용문시장서 현장 간담회 “대환대출·전기로 지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서울 용문시장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관련 단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 오 장관은 “대환대출·전기로 지원”

형 소상공인 육성을 포함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중·장기 육성 정책을 담은 소상공인·지역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1·2차 재난지원금 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은 오 장관과 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안과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작년보다 1조원 늘어난 5조1천억원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바탕으로 4대 우선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천억원 규모로 대환대출을 실시하고 에너지요금 완화를 위해 2천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지원을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자영업 생업 안전망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원 규모까지 늘릴 계획이다.

오 장관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이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오 장관이) 민생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혼신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황승길 기자

인천항~중국 련윈강 카페리 여객 운송 재개

인천항과 중국 장쑤성 련윈강을 잇는 한중 국제카페리의 여객 운송이 3년 11개월 만에 재개됐다.

3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선사 연운항해리는 지난달 27일부터 인천항~련윈강 노선에서 여객 운송을 다시 시작

했다. 선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1월 말부터 여객 운송을 중단했다.

카페리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인천항을 출발해 련윈강으로 운항한다. 해당 노선에 투입되는 카페리는 3만5

천t급 하모니 원강호로, 여객 1천80명과 화물 376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다. 엔데믹 이후 여객 운송을 재개한 인천항의 한중 국제카페리 노선은 련윈강 항로가 추가되면서 기존 4개에서 5개로 늘었다.

인천항의 한중 카페리는 코로나19 사

/ 안석민 기자

건설노조 전북본부 “굴삭기 넘어짐 사고 발주처가 책임져야”

농어촌공사 “안전관리자 배치…해결하도록 노력”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전북본부는 3일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공사 발주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 군산시 점산지구 배수 개선사업 토목공사 현장에서 40대 A씨가 몰던 굴삭기가 넘어

졌다.

노조는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수천만 원의 굴삭기 수리비를 받지 못한 3개월가량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자 없이 연약한 지반 위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만큼 발주처인 농어촌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사고 당일 안전 관리자를 배치했다”며 “A씨도 지반이 연약한 현장 여건을 인지하고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공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송현수 기자

서대문구 올해도 정비사업강좌 연다…“조합임원 의무 이수 추진”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현)는 지난해 2~12월 조합 관계자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연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또 서대문구 내 조합(주진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의무 이수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강좌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할 때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지난해에는 총 33회에 걸쳐 복잡한 정비사업 방식을 쉽게 안내하는 ‘정비사업 주민학교’와 정비사업조합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역량 강화 교육’으로 나뉘어 열렸다. 교수, 건축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 기간 연인원 2천400여명이 대면 수강하고 유튜브 조회 수가 1만2천회를 넘을 정도로 호응을 받았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이성현 구청장은 “새해에도 아카데미에 참여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을 높이면 보다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항상 그리워하던 고향이 도착했습니다!

고향의 맛, 고향의 그리움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마음을 전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가정에서 받아보세요

딩~딩!

마음을 보냈습니다. 고향에게 정성이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부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타래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타래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을 타래품 지급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포털)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 농협점
* 기부 한도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단체)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2024

새해에는 값진 인연 소중하게 이어가겠습니다
하루하루 희망 가득한 꿈과 소망을 이루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대구·광주 등 14개 영호남 지자체, 달빛철도법 국회통과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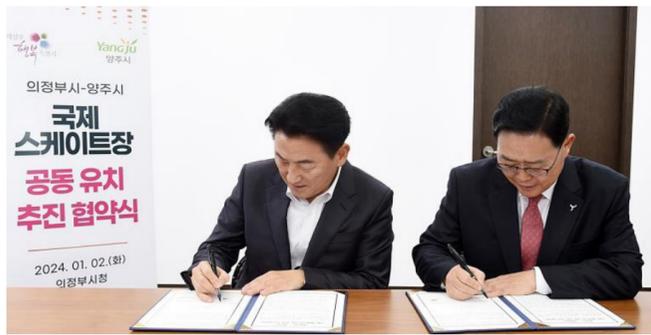


지난해 4월 달빛동맹 업무 협약식

대구시와 광주시 등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3일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6개 광역지자체 시장·도지사와,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8개 시·군 단체장이 이 건의서에 이름을 올렸다. 지자체장들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이 있다”면서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해

야 한다”고 촉구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연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 본회의 과정을 남겨 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의 행정·재정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 유형과 관련해서 복선으로 하는 내용이 당초안에 포함됐으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km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오는 2030년 완공 목표다. / 오현성 기자



김동근(왼쪽) 경기 의정부시장과 강수현 양주시장이 2일 의정부시청에서 국제 스피드 스케이팅장 공동 추진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양주시-의정부시, 국제 스키이트장 공동 추진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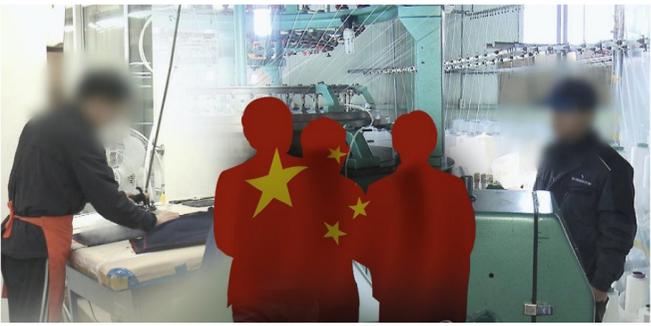
경기 양주시와 의정부시는 2일 의정부시청에서 국제 스피드 스케이팅장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지자체는 국제 스피드 스케이팅장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두 지자체는 앞으로 스케이팅장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 협약과 유치 성공 때 두 시의 주민에게 모두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두 시의 지역 발전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두 시는 대한체육회가 지난달 13일 태릉스케이팅장 대체 시설 건립 부지 선정을 공고하자 유치를 나서고 있다. 대상지는 스피드 스케이팅 전용 400m 트랙을 갖춰야 한다. 이에 양주시는 광사동 일대 11만㎡를 스케이팅장 건립 후보지로 제안한 상태다. 국제 스피드 스케이팅장은 당초 의정부시가 유치하려 했다. 2018년부터 녹양동 종합운동장 옆 땅 3만2천㎡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제 규격 컬링 전용 경기장과 빙상장을 갖춘 태드 스피드스케이팅·쇼트트랙 빙상팀도 운영해 국제스케이팅장까지 유치하면 빙상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이런 기류가 바뀌었다. 원래 종합운동장 옆 땅은 보조경기장 건립지로 계획됐다. 종합운동장에서 육상 등 전국 규모 대회를 열려면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국체전도 열 수 없다. 이에 종합운동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스케이팅장 유치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계획대로 보조경기장을 짓기로 했다. 두 지자체와 별도로 인접 동두천시도 지난달 전담팀(TF)을 구성해 국제 스피드 스케이팅장 유치를 도전장을 냈다. 대한체육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현지실사 등을 거친 뒤 4~5월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 권도혁 기자

작년 연말정산 외국인 54만명...평균 연봉 3천180만원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 정산해야”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천179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천명으로 전년(50만5천명)보다 약 3만9천명 증가했다. 신고세액은 1조1천94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년과 비슷한 3천179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8만7천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천명·8.2%), 네



팔(3만4천명·6.2%), 인도네시아(2만8천명·5.1%), 미국(2만6천명·4.9%) 등 순이었다. 외국인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40%(4천771억원)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같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19% 단일 세율, 기술자 감면 등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특례 규정이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경우 외국인인 주민주거비상 세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상담 전화(☎1588-0560)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매뉴얼도 제공된다.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연정 기자

‘모든 게 신기해요’...생후 6개월 된 에버랜드 쌍둥이 판다 공개 4일부터 오전에 일반 관람 시작...“적응상황 보며 관람시간 늘릴 예정”



방사장으로 나온 쌍둥이 판다

지난해 7월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4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쌍둥이 판다 일반 관람을 하루 앞둔 3일 미디어데이 행사를 통해 생후 6개월 된 쌍둥이를 언론 매체에 공개했다. 지난해 7월 7일 각각 180g, 140g으로 태어난 쌍둥이는 현재 몸무게가 11kg을 넘을 정도로 성장한 상태였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출입구를 통해 실내 방사장으로 나온 엄마 아이바오는 ‘판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가 데크 위에 마련해 놓은 대나무를 향해 곧장 기어가 식사를 시작했다. 곧이어 쌍둥이도 방사 됐으나, 아직은 밖이 어색한 지 5분여간

출입구 주변에만 머물렀다. 강 사육사가 쌍둥이를 방사장 중앙으로 안아서 옮겨주자 둘은 지형을 살피고 냄새를 맡는가 하면 바위 위에 오르거나 나무 데크 기둥을 잡고 서는 등 차츰 방사장에 적응해 나갔다. 에버랜드 측은 쌍둥이 건강 상태를 고려해 4일부터 당분간 오전 일부 시간에만 실내 방사장에서 쌍둥이 일반 관람을 시작하고, 차츰 관람 시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쌍둥이가 관람객을 익히고 방사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판다월드 관람 인원도 축소해 운영할 예정이다. 에버랜드는 단독생활을 하는 판다의 생태 습성상 이미 독립한 판다인 푸바오가 쌍둥이 동생과 같은 공간에 함께 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푸바오도 교차로 방사해 관람객들이 판다월드에서 푸바오를 계속 만나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 오준현 기자

5·18 8차 보상에 1천982건 신청 해직·학사징계·성폭력 포함

8년 만에 이뤄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에 2천건 가까운 사례가 접수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5·18 8차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천982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성폭력 26건, 해직 266건, 학사징계 673건, 사망 1건, 행방불명 14건, 상이 300건, 등급 재조정 335건, 연행·구금·수배 367건이다. 신청자는 2차(1993년) 2천788건, 1차(1990년) 2천693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친 보상에는 9천227건이 신청해 5천807건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8차 보상은 5·18 보상법과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해직자, 학사징계자,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광주시는 현지 사실 조사를 거쳐 5·18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 장해등급 판정위원회(상이자 한정)에서 인정받은 사

람을 대상으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 포함된 해직자 등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이 지연될 경우 일부 혼선도 예상된다. 해직자와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학사 징계자에게는 징계 말소, 명예졸업 등 명예 회복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로 마련할 보상 기준은 행정안전부 보상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수경 기자

에너지 나눔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GS칼텍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서부터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까지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일, GS칼텍스가 함께하겠습니다.

I am your Energy

GS칼텍스

- 좋아하는 일 찾기
- 건강하기
- 더 많이 웃기

새해 바라는 거 다해

꿈꾸는 일 다 이루는
행복한 2024년 되세요



올림픽 축구대표팀, 14일부터 튀르키예 안탈리아 전지훈련

2024 파리 올림픽 예선을 준비하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튀르키예에서 새해 첫 담금질에 나선다.

대한축구협회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오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림픽 대표팀은 올해 4~5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있다.

파리 올림픽 남자 축구 아시아 예선인 이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어야 파리로 직행하며, 4위에 오르면 아프리카축구연맹(CAF) 소속 국가와의 플레이오프로 파리행을 타진하게 된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대기록에 도전하는 황선홍호는 이번 훈련 기간



지난해 11월 프랑스 원정 평가전 당시 올림픽 대표팀

유럽 클럽과 5차례 연습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황 감독은 이번 훈련에 27명의 선수를 불러들였다.

포르투갈 에스토릴 프라이아 소속의 수비수 황인택을 제외하면 모두가 K리그 선수들이다.

변준수(대전), 엄지성(광주), 홍윤상(포

항) 등 지난해 11월 프랑스 원정 평가전 때 나섰던 주축 선수들이 이번에도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황재우 아시아게임 금메달 멤버인 고영준(포항), 황재원(대구), 안재준(부천), 김정훈(전북)도 합류했다.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브론즈볼 수상자인 이승원(강원)과 이영준(김천), 박호민(부천), 황인택은 처음으로 황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황선홍 감독은 "선수 차출에 협조해 준 K리그 구단 감독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이윤성 기자



강경민

핸드볼 H리그 여자부, 4일 재개 SK 강경민 등 이적생 활약 기대

핸드볼 H리그 여자부 경기가 4일 재개된다. 지난해 11월 개막한 신한 SOL페이 2023-2024 핸드볼 H리그 여자부 경기는 2경기만 치르고 약 2개월간 중단됐다.

시즌 개막 후 노르웨이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을 전후해 대표팀 소집 및 대회 출전에 따른 조치였다.

11월 11일에 열린 SK 슈가글라이더즈와 부산시청공단, 11월 12일 서울시청과 대구시청 경기만 개막 시리즈로 진행됐고 삼척시청, 광주도시공사, 인천시청, 경남개발공사는 아직 한 경기도 치르지 않았다.

특히 주요 이적 선수들이 올해 1월부터 새 소속팀에서 뛰 수 있기 때문에 여자부 경기는 사실상 4일이 개막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자부 경기가 재개되는 4일에는 경기도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오후 6시부터 SK와 서울시청, 부산시청공단과 대구시청의 경기가 차례로 열린다.

SK는 최근 네 시즌 가운데 세 번이나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강경민을 광주도시공사에서 영입, 전력이 강해졌다.

경남개발공사는 국가대표 센터백 이미경을 부산시청공단에서 데려왔고, 삼척시청에서 뛰던 강은서는 인천시청으로 옮겼다.

외국인 선수는 부산시청공단이 조야나(앙골라)와 알리나(에스토니아), 2명을 기용했고 SK는 레이(일본)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다.

'디펜딩 챔피언' 삼척시청이 지난 시즌까지 코리아리그 2연패를 달성했고, H리그로 명칭이 바뀐 올해 첫 3연패에 도전한다.

강경민을 영입한 SK와 우뚝나의 성장세가 돋보이는 서울시청, 젊은 선수들로 개편한 부산시청공단 등도 상위권 후보로 꼽힌다.

4일 경기에는 에어팻맥스, 치킨 상품권, H리그 기념품 등 선물을 입장 관중들에게 증정한다. 남자부는 11일 바레인에서 개막하는 아시아선수권 대회 준비 관계로 30일 리그 일정을 재개한다.

/ 노승만 기자

프로농구 올스타전 입장권, 8일 오후 3시부터 예매

KBL은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 티켓 예매를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중앙 플로어석, 1층 R석, 2·3층 일반석과 스카이박스 등을 포함한 올스타전 티켓은 KBL 통합홈페이지(www.kbl.co.kr)에서 판매된다.

휠체어석은 현장 구매만 가능하다. 어린이·청소년,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대상자는 증명자료를 지참해 매표소에서 발급할 수 있다.

이번 시즌 프로농구 올스타전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다.

/ 배순철 기자

고우석, '친구 겸 처남' 이정후와 MLB서 '경쟁 2막 개봉박두'

SD 입단하면 서부지구서 이정후와 맞대결...KBO리그에선 9타수 3안타



고우석(왼쪽)과 이정후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간판스타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고우석(LG 트윈스)의 인연은 오래됐다.

1998년생인 두 선수는 프로 입단 전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정후는 2022년 11월에 열린 KBO리그 최우수선수상(MVP) 시상식에서 "우석이라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경쟁했다"며 "우석이의 공을 쳐야만 이길 수 있어서 피칭 머신의 스피드를 빠르게 맞춰놓고 훈련한 기억이 난다"고 소개했다.

두 선수는 경쟁 속에서도 깊은 우정을

쌓았다.

경기장에선 한 치의 양보 없이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었지만, 경기장 밖에선 서로의 성장을 응원했다. 두 선수의 특별한 관계는 프로에 입단한 뒤에도 계속됐다.

이정후와 고우석은 가족끼리 교류했고, 고우석은 자연스럽게 이정후의 동생인 이가현 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지난해 1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정후와 고우석, 그리고 이정후의 부친인 프로야구의 전설 이종범 코치와의 관계는 국내를 넘어 일본, 미국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최근 이정후의 샌프란시스코 입단으로 끝났던 것 같았던 두 선수의 경쟁 구도는 고우석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로 다시 불붙게 됐다.

고우석은 최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입단 제의를 받았고, 소속 팀인 LG 트윈스의 허락을 받고 3일 미국으로 떠났다.

그는 4일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샌디에이고와 정식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샌디에이고와 샌프란시스코는 MLB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 소속 라이벌 팀이다.

두 팀은 2024시즌 총 13번의 맞대결을 펼친다. 첫 맞대결은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펼쳐진다. 고우석은 4연전을 치르면서 샌프란시스코 주전 중견수로 낙점받은 이정후와 투타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두 선수는 KBO리그에서 통산 총 11차례 맞대결을 펼쳤다.

이정후는 11타석 9타수 3안타 1타점 1볼넷 1희생타 타율 0.333, 출루율 0.364, 장타율 0.333의 성적을 올렸다.

KBO리그 개인 통산 성적(타율 0.340) 보다는 낮지만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20203시즌엔 한 차례 맞붙어 고우석이

볼넷을 내줬다. 고우석이 샌디에이고에 입단하면 MLB NL 서부지구는 아시아 선수들의 경쟁 구도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같은 지구 소속 팀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올겨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와 일본 출신 에이스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영입했고, 샌디에이고엔 김하성과 다르빗슈 유, 일본 출신 왼손 불펜 투수 마쓰이 유키가 있다.

고우석은 당장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다저스와 2024 MLB 정규시즌 개막시리즈부터 준비해야 한다. 고우석은 오타니와 투타 맞대결을 펼칠 수도 있다. 두 선수의 맞대결은 일본에서 더 기대하는 눈치다.

고우석은 지난해 2월 국내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통해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오타니와 맞붙게 된다면 어떻게 대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던질 곳이 없으면 안 아픈 곳에 맞히겠다'고 답했다. 약의적인 의도는 없었으나 고의로 사구를 던지겠다는 의미로 읽히면서 복수의 일본 매체들은 관련 내용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매체들은 고우석의 샌디에이고행 가능성이 알려진 3일 관련 소식을 알리면서 '오타니에게 고의 사구를 던지겠다고 한 선수'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

/ 양은주 기자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용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이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나영석 “세븐틴은 착한 애들... ‘나나투어’로 보여주고 싶어”

세븐틴 이탈리아 여행 담은 ‘나나투어’ 5일 첫 방송

“세븐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착한 애들’이에요. 애들이 정말 귀엽잖아요. 저도 이번에 모르던 매력을 알게 됐는데, 시청자들도 그 매력을 같이 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 여행 예능 프로그램을 흥행시킨 나영석 PD가 보이그룹 세븐틴의 이탈리아 여행 가이드로 나선다. 나 PD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나나투어 위드 세븐틴’(이하 ‘나나투어’) 제작발표회에서 세븐틴의 매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나나투어’는 세븐틴 멤버들이 갑자기 일정을 고지받고 나 PD와 함께 6박 7일 동안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5월 방송된 ‘출장 십오야’ 시즌2에 출연한 세븐틴 멤버들



tVN 예능 ‘나나투어 위드 세븐틴’ 제작발표회

이 퀴즈 상품 뽑기에서 ‘세븐틴 꽃정춘 출연’이라고 적힌 쪽지를 뽑은 것을 발단으로 기획됐다. 제작진은 특히 여행 직전까지도 세븐틴에게 출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놀라움을 키웠다고 한다. 세븐틴 디노는 “콘서트를 마친 뒤에 편하게 술을 마시고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석이형(나

PD)이 나타났다”며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도 형 얼굴을 보자마자 술이 다 됐다”고 털어놨다.

공개된 예고 영상에는 나 PD가 가이드용 깃발을 들고 세븐틴 멤버들을 인솔하고 관광지에서 얽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모습이 담겼다. 에스콰스는 부상 때

문에 여행에 함께하지 못하고 나머지 열두 명의 멤버가 여행을 떠났다.

나 PD는 제작발표회에서 “프로그램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이견이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하나로 출연한 사람이 ‘찐’으로 행복하고 즐기고 행복해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일단 출연자가 행복해야 TV를 통해 시청자에게 그 행복이 전달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븐틴 멤버들이 여행 기간에 모두 행복해하는 것이 느껴졌고, 그 행복이 저한테도 전이돼서 너무나 즐거웠다”며 “시청자들에게 이 행복을 전해드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나나투어’는 오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8시 40분 방송된다.

/ 이은정 기자



배우 이나은(왼쪽)과 축구선수 이강인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 이강인과 열애설에 “지인 사이”

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이 축구선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열애설이 불거졌으나 지인 사이라며 부인했다. 2일 더팩트는 이강인과 이나은이 작년 11월 여러 차례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나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경기를 앞둔 지난 해 11월 14~15일 한국 축구대표팀 숙소가 있는 서울 여의도 호텔을 찾아가 이강

인을 만났다. 이강인은 같은 달 17일 이나은의 집이 있는 경기 구리의 아파트 근처를 찾아가 이나은과 시간을 보냈다고 이매체는 전했다.

이나은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두 사람은 지인 사이”라며 이강인과의 연애를 부인했다. 다만 소속사는 이나은과 이강인이 실제 만났는지, 어떤 이유로 만났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 서정미 기자

마동석 올해 첫 출격...액션 영화

‘황야’, 26일 넷플릭스 공개



영화 ‘황야’ 포스터

영화 ‘황야’를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마동석은 괴력의 사냥꾼 ‘남산’을 연기했다. 군용 장검으로 악어를 잡고 장총과 소총, 맨손으로 적에 맞서는 다양한 액션을 선보인다.

이준영은 남산의 파트너 ‘지완’ 역을, 이희준은 의사 ‘기수’ 역을 맡았다. 노정의와 안지혜는 소녀 ‘수나’와 특수부대 소속 중사 ‘은호’ 역을 각각 소화했다.

이 영화는 ‘범죄도시’ 시리즈 무술 감독으로 이름을 알린 허명행 감독의 연출 데뷔작이다.

허 감독은 올해 상반기 개봉 예정인 ‘범죄도시 4’에서도 직접 메가폰을 잡았다.

마동석은 주인공인 괴물 형사 ‘마석도’로 ‘범죄도시 4’를 이끈다.

아울러 임대희 감독의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에서도 액션을 뽐낼 예정이다.

/ 김희선 기자

‘범죄도시’ 시리즈를 통해 ‘한국형 히어로’로 거듭난 배우 마동석이 올해 첫 주연작 ‘황야’에서 괴력의 사나이로 돌아온다. 넷플릭스는 오는 26일 마동석 주연의

‘더 시즌즈’ MC 맡은 이효리 “음악적 소통에 갈증 컸다”

“제주에서 살면서 음악적으로 선배들과 소통하는 것에 갈증이 있었어요. 선배들을 만나서 음악과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내가 어떤 음악을 하면 좋을지 찾고 싶었죠.”

가수 이효리가 음악 프로그램 ‘더 시즌즈’의 MC로 방송에 돌아온다. 이효리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진행된 ‘더 시즌즈-이효리의 레드카펫’에서 사회를 맡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더 시즌즈’는 매 시즌 새로운 MC가 진행을 맡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작년 2월 처음 방송됐다. 이효리는 박재범, 최정훈, 약육에 이어 네 번째로 MC를 맡았다. 석 달 뒤에는 다음 주자에게 MC 자리를 넘기게 된다.

이효리는 과거 여러 예능 프로그램 MC로 활동했고 2012년에는 정재형과 함께 ‘정재형 이효리의 유앤아이’ MC로 활약했지만, 단독으로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이효리는 “마흔살 이후로는 떨림이 없었는데, 이런 기분 좋은 떨림은



MC 이효리

오랜만”이라며 “여러분께도 기분 좋은 떨림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녹화에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 댄스쿠루 베베, 악뮤 찬혁, 배우 이정은, 코미디언 신동엽이 무대에 올랐다.

제니는 이날 “저의 영원한 우상을 뵈게 돼서 행복하다”며 “KBS는 데뷔 7년 만에 처음 나와봤다”고 이효리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무대에서 ‘유앤미’와 ‘미스코리아’를 선보였다. ‘미스코리아’ 무대는 이효리도 함께했다.

‘더 시즌즈-이효리의 레드카펫’은 이달 5일부터 매주 오후 11시 20분 방송된다. / 강효성 기자

윤여정·유해진 휴먼 드라마 ‘도그 데이즈’ 내달 개봉

윤여정과 유해진이 주연을 맡은 영화 ‘도그 데이즈’가 설 연휴 이틀 전인 다음 달 7일 개봉한다고 배급사 CJ ENM이 2일 밝혔다. 개를 매개로 만나게 된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드라마 장르다.

윤여정은 반려견 완다와 단둘이 사는 까칠한 성격의 유명 건축가 ‘민서’를, 유해진은 개를 싫어하는 동물병원 건물주 ‘민상’을 각각 연기했다. 두 배우가 한 작품

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서형은 민상의 건물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진영’ 역을, 김윤진은 초보 엄마 정아 역을 소화했다. 이 밖에도 정성화, 다니엘 헤니, 이현우, 탕준상 등 여러 배우가 출연한다.

‘영웅’(2022), ‘그것만이 내 세상’(2018) 등에서 조연출을 맡은 김덕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 권민영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감진행복

생각이 달라도 서로 이해할 때,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되라고 먼저 응원할 때,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감진년 새해, 그 감진 행복이 용솨음치기를
SK가 응원합니다. SK가 함께합니다.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하고 싶은 거 다~해 연금 들고 나서

즐기는 인생엔 연금이 기본이니까!



연말정산도 돌려받는 지금이
연금하기 좋을 때다

투자를 똑딱! **개비증권**



최대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비대면 계좌개설하면
평생 수수료 면제
(퇴직금/개인납입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KB증권 IRP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4469호(2023년 12월 8일~2024년 12월 7일)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펀드보수 및 유관기관 수수료는 별도 발생합니다.